

정인조(鄭寅朝)의 「울릉도기행(鬱陵島紀行): 식물채집기 (植物採集記)」에서 보는 1947년의 울릉도*

최재목**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Jeong In-jo's travel writing titled "Ulleungdo: Plant Collection Records," written in 1947. This travel writing describes the landscape of Ulleungdo Island in 1947,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but it has not yet been mentioned in the related studies so far. First, it seems that Jeong In-jo already had a lot of basic knowledge about Ulleungdo's plants. This is because this travel writing was written after a participation in the academic research team formed jointly by the 'South Korean Transitional Government' and the 'Chosun Mountain Association', that went to Ulleungdo in August 1947. Second, all the 30 plant species mentioned in the travel writing are growing on Ulleungdo. Third, the travel writing clearly reveals the firm consciousness of the motherland, and the joy of stepping on the land of Ulleungdo as our homeland, far from the mainland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Fourth, Ulleungdo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was politically quiet, but it can be seen that harvesting herbs and vegetables as well as logging are routinely performed. Of course, this behavior was sustained not only at the time but also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 the Japanese and by the Joseon people (inland and islands). Fifth, the scenery of Ulleungdo left by the Japane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an be seen from the two-story houses in Dodong Port and the Sugi trees planted by the Japanese in the mountains. Everything else is not recorded and cannot be grasped.

Key words : Jeong In-jo, Ulleungdo, travel essay, Ulleungdo Academic Research Team, Plant collection, 1947.

1. 서론

개화기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기초자료는 대부분 조사, 집성되어 있으나) 예컨대 해방 이후 본격적인 울릉도·독도 탐사가 시작된 1947년 전후의 자료는 정병준의 연구(『독도1947』)²⁾에서 제시한 자료를 제외하면 별도로 파악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8A02103036)

**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장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바람. 유미림·조은희(2008) 『개화기 울릉도·독도 관련 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강현(2009) 『울릉도 개척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방 후 3년이 지난 시점인 1948년 7월에 발표된 鄭寅軫(1918-?)의 「鬱陵島紀行：植物採集記」(『學風』, 1948.7)³⁾를 중심으로 울릉도의 식물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원고의 말미에는 탈고한 날짜가 ‘1948.7.20.’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행문 가운데서 그는 “서울을 떠나기 전부터 내리던 장마비는 오늘은 멈추었으나…”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이 기행문이 그 전해 여름의 답사를 다녀오고 나서 약 1년 뒤 발표된 것임을 짚어준다. 따라서 이 글은 1947년 8월 ‘여름’ 문교부의 후원으로 ‘남조선 과도정부’와 ‘조선산악회’가 공동으로 ‘울릉도학술조사대’(이하 ‘조사대’)를 구성하여 울릉도 및 독도를 현지 답사할 때(1947년 8월 18일-26일)⁴⁾의 내용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 ‘조사대’가 답사를 마친 뒤 많은 신문·잡지에서 관련 기사와 답사보고서 및 기행문 등을 발표한다.⁵⁾ 그런데 기존의 연구서에서 이 자료를 언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는 의미는 물론 해방 직후 일본에 강탈당했던 국토 울릉도의 자생 식물 포함 및 당시 섬 풍경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판단된다.⁶⁾

일반적으로 ‘紀行’이란 것은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수필 등의 형식을 빌려서 쓴 글을 말한다. 더구나 이 글은 ‘채집기’이므로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정인조’라는 인물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나, 張亨斗 등과 더불어 한국의 나무 이름을 붙이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보인다.⁷⁾

1947년 8월 남조선 과도정부와 조선산악회가 공동으로 ‘울릉도학술조사대’(이하 ‘조사대’)를 구성하여 울릉도 및 독도를 현지 답사한 바 있는데, 정

2) 정병준(2010) 『독도 1947』, 돌베개.

3) 鄭寅軫(1948.9) 「鬱陵島紀行：植物採集記」, 『學風』, 乙酉文化社, pp.87-91.[영인본 『韓國現代文學資料叢書』·14, (景仁文化社, 1989) 수록].

4) 원본 보고서는 외교부 자료실을 참조(https://dokdo.mofa.go.kr/m/kor/pds/part03_view21.jsp)(검색일: 2020.8.5.) 이 조사대에 대한 연구는, 송호열(2015.9) 「1947년 독도 학술조사에 대한 지리적 고찰」,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권3호, 한국사진지리학회 등이 있다.

5) 지금까지 파악된 관련 자료는 <부록>[1947 울릉도 학술조사대 관련 ‘기사·답사보고서·기행문·사진 목록’]을 참고바람.

6) 참고로 1947년 洪九杓가 쓴『無人 獨島 踏査를 마치고(紀行)』가 있다(洪九杓(1947) 『無人 獨島 踏査를 마치고(紀行)』, 『建國公論』 11월호(제3권 제5호), 현암사).

7) <http://webbuild.knu.ac.kr/~china/BAL/bal71/bal71K.pdf>(검색일: 2016년 1월)

병준은 『독도1947』(돌베개, 2010)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는 송석하를 대장으로, 홍종인과 도봉섭이 부대장으로 하는 ‘본부’ 15명, 8개의 ‘학술반’ 63명 - ‘사회과학A·B반’(21명), ‘동물학반’(6명), ‘식물학반’(9명), ‘농림반’(4명), ‘지질광물반’(2명), ‘의학반’(8명), ‘보도반’(8명), ‘전기통신반’(2명)의 78명 외 - 이 조사에 참여한다. 이 속에는 국어학자 방중현, 고고학자 김원용⁸⁾, 나비박사 석주명, 한자학자 임창순, 역사학자인 국사관 관장인 신석호 등 당대 각 분야의 저명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들은 8월 18일 포항에서 출발하여 오후 6시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 20일(1일간) 독도조사, 21일-24일(4일간) 울릉도 조사 기간을 가진 다음, 26일 포항으로 돌아온다.⁹⁾

그런데 아쉽게도 『독도1947』에는 이 논문에서 다룬 鄭寅朝나 그의 기행문 「鬱陵島紀行-植物採集記」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鄭寅朝는 ‘식물학반’(9명) 가운데 소속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¹⁰⁾

‘조사대’는 울릉도·독도를 조사한 후 玉昇植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948년 3월 미군정청 상무부 지질광산연구소에서 『鬱陵島獨島調査報文』(별칭: 『지질광산연구소 조사보고서』)으로 간행한다. 2017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에서 이것을 전사하여 현대문으로 윤문하고 해제를 붙여 간행한 바 있다.¹¹⁾ 당시 옥승식은 미군정청 상무부 지질광산연구소 물리탐사과에서 광지기사 과정으로 재직 중이었다.¹²⁾

이 논문에서는 새로 소개하려는 鄭寅朝의 기행문이 ‘植物採集記’이므로 먼저 <근·현대기 울릉도 식물조사>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살필 것이다. 이어서 鄭寅朝의 「鬱陵島紀行: 植物採集記」의 내용을 분석, 검토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선 종래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紀行文’의 내용과 그의 미는 물론 해방 직후 울릉도의 식물 상황 등을 추정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 참고로 김원룡의 조사는 1947년에 이어 1957년에도 이루어졌다. 이후 이 결과는,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편(2008) 『鬱陵島』, 국립중앙박물관)로 발간되었다. 이 책의 ‘머리말’에는 발굴 조사에서 겪은 악천후의 고생을 적고 있다(p.19 참조).

9) 정병준(2010) 『독도 1947』, 돌베개, pp.110-141 참조.

10) 鄭寅朝의 학문적 업적 등에 대해서는 부득이 1947년도 울릉도독도 기행에 대한 총괄 검토를 진행할 때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11) 최재목·이태우 외 2인(2017) 「울릉도독도조사보문」, 『해방 이후 울릉도·독도 조사 및 사건 관련 자료 해제·1』, 영남대독도연구소 참조.

12) 최재목·이태우 외 2인(2017) 『해방 이후 울릉도·독도 조사 및 사건 관련 자료 해제·1』, 영남대독도연구소, p.21 참조.

2. 1947 이전의 울릉도 식물조사 상황

‘조사대’가 울릉도나 독도의 식물 조사를 시행하기 전인 일제강점기에도 여러 건의 조사가 있었다.¹³⁾ 이 조사는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조사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식민공간’에서의 조사란 식민지 영내 소유 자산과 물건들에 대한 領有의 표현이자 知的 지배 강화를 의미한다. 동식물은 물론 강탈·취득한 모든 자산들에 대해 새로운 언어로 命名을 하여 불가침의 신성한 영역을 표시해간다. 그런 공간은 많은 조사(관리·감독)를 통해 고유 영역임을 선언하며, 아울러 지배 공동체 내의 소통을 위한 일종의 ‘특수 언어’ 혹은 ‘프로토콜’(protocol. 대화에 필요한 규약)¹⁴⁾을 창출해낸다. 이것은 식민지 내 새로운 ‘공간의 생산’이며, 공간의 지배나 관리, 발견을 위한 ‘사회적·언어적 협상’ 행위¹⁵⁾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사의 선단에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 학자들이 동원된다. 유미립이 언급한대로 “울릉도 식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12년 岡本金藏(오카모토 긴조)의 조사, 1917년 石戶谷勉(이시도야 쓰토무)·河內春一(가와치 슌이치)의 조사 및 中井猛之進(나카이 다케노신)의 조사”¹⁶⁾를 들 수 있다.

서효원에 따르면, 오카모토 긴조는 조선총독부 산하 임업시험장의 기사로서 1912년 울릉도를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7년 어느 날 강원도 죽변항(현재는 경북 울진군으로 편입)에서 출발한 한척의 배를 타고 조선총독부 촉탁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박사, 임업시험장 기수 정태현, 미국 식물학자 윌슨(E.H.Wilson) 박사 등 다국적 식물 조사단이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한다. 나카이는 5년전 이 섬에 다녀온 임업시험장의 오카모토 긴조(岡本金藏)와 1년전 다녀온 이시도야 쓰토무(石戶谷勤)가 채집해 온 식물표본 중에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불

13)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장진선·장계선(2010.6) 「외국인의 한반도 식물 채집행적과 지명재고 (IV) Tsutomu Ishidoya(石戶谷勉)」, 『식물분류학회지』 40권2호, 한국식물분류학회 등을 참고.

14) 마거릿 버트하임(1999) 『공간의 역사』, 박인찬 옮김, 생각의 나무, p.424.

15) 마거릿 버트하임(1999) 『공간의 역사』, 박인찬 옮김, 생각의 나무, p.428쪽 참조.

16) 유미립(2014.2)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독도’ 호칭」, 『영토해양연구』 Vol.5, 동북아역사재단, pp.207-208;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1919) 『鬱陵島植物調査書』, 조선총독부; 오수영(1978) 「울릉도 관속식물상에 관한 연구」, 『경북대논문집』 25호, 경북대학교.

수 없었던 새로운 종들이 있음을 알아채고 울릉도행을 결심했던 것 같다. 허버드대 아놀드수목원에서 아시아식물을 담당했던 윌슨 박사를 대동한 것은 새로운 종을 발견했을 때 서구 학계에 신종보고를 위한 검토와 조언을 듣기에 최적의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⁷⁾ (밑줄은 인용자)

아울러 식물학자 鄭台鉉(1882-1971)의 회고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울릉도 식물 조사에 대한 건이다.

필자가 본 도를 최초로 갔을 때는 나카이(中井) 박사와 미국식물학자 윌슨(Wilson) 박사와 동행을 했습니다. 본 도의 식물은 1912년에 오카모토 긴조(岡本金藏)씨에 의하여 최초로 채집되었고 그 후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답사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답사 결과는 1914년에 울릉도식물조사서(鬱陵島植物調査書)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도의 식물 특히 수목은 해발 600미터를 경계로 하여 현저히 다릅니다. 600미터 이하에는 후박나무(*Machilusrimosa* var. *Thunbergii*), 굴거리나무(*Daphniphyllum macropodum*), 감탕나무(*Ilex integra* var. *typica*),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보리밥나무(*Elaeagnus macrophylla*), 송악(*Hedera Tobleri*), 식나무(*Aucuba japonica* var. *typica*), 순비기나무(*Vitex rotundifolia*), 꾸지나무(*Broussonetia papyrifera*), 솔송나무(*Tsuga Sieboldii*), 섬갓나무(*Pinus parviflora*), 바위수국(*Schizophragma hydrangeoides*) 같은 온대식물이 있고, 600미터 이상에는 너도밤나무(*Fagus multinervis*), 털고로쇠(*Acer mono* var. *paxii*), 홍만명초(*Rhododendrum Fauriei* var. *roseum*), 두메오리나무(*Alnus maximowiczii*), 섬대(*Sasa kurilensis*) 같은 것이 있고, 난지성 상록활엽수(暖地性常綠闊葉樹)는 전연 볼 수 없습니다.¹⁸⁾(밑줄은 인용자)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종합학술조사단의 보고서 『鬱陵島·獨島踏査紀要』에 들어 있는 權炳奎의 「鬱陵島 및 獨島の 生物相 概觀」(1977.12)이라는 논문¹⁹⁾을 보면 1947년 이전 및 이후의 울릉도·독도 식물 답사의 기록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일단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보완해두고자 한다. [?는 원고 자체에 빠져 있는 것을 인용자가 표시한 것이다.

17) 서효원의 글([서효원의 시시콜콜 과학사] 울릉도 식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조선일보, 2016.10.1.)(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30/2016093085012.html)(검색일: 2020.8.1) 참고

18) [정태현 회고_야적을 메고 50년(완)_조선식물향명집 이야기(9)-화우의 야단법석 꽃 이야기·129] (http://www.indica.or.kr/xe/flower_story/6283344)(검색일: 2020.8.1)

19) 權炳奎(1977.12) 「鬱陵島 및 獨島の 生物相 概觀」, 『鬱陵島·獨島踏査紀要』,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종합학술조사단, p.94.

파악된 사항은 각주로 밝혀두기로 한다.]

<표 1> 權炳奎 정리 ‘1947년’ 전후 울릉도·독도 식물 답사 목록

1. 岡本金藏, 1912, ?20)
2. 石戶谷勉·河野春日, 1917, 鬱陵島の 森林植物
3. 中井猛之進, 1919, 鬱陵島植物調査書
4. 森爲三, 1922, ?
5. 石戶谷勉, 1928, 鬱陵島の 植物區系에 關한 考察
6. 山本榮, 1931, 鬱陵島の 動植物
7. 植木秀幹·佐方敏男, 1935, 鬱陵島の 事情
8. 都逢涉·沈鶴鎮, 1936, ?
9. 北村四郎, 1939, 鬱陵島の 菊科植物, 5種
10. 朴萬奎·朱尙宇, 1949, ?
11. 朱尙宇, 1955, ?
12. 楊麟錫, 1956, 울릉도의 식물
13. 李德鳳·朱尙宇, 1958, 鬱陵島 植物相의 再檢討
14. 吳修榮, 1971, 鬱陵島 羊齒植物에 關한 研究
15. 李永魯, 1972, 鬱陵島の 植物相
16. 吳修榮, 1977, 鬱陵島産 羊齒植物 分布에 關한 研究

위의 표에서 1947년 이전의 조사는 9건(1~9)이다. 즉 일본인 8건(岡本金藏, 石戶谷勉·河野春日, 中井猛之進, 森爲三, 石戶谷勉, 山本榮, 植木秀幹·佐方敏男, 北村四郎의 10인), 한국인이 1건(都逢涉·沈鶴鎮 2인)이다.

이렇게 식민치하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주도로 식물조사연구의 근대적 기법이 시도되고 있었다. 그것은 조선 통치관리의 주요한 방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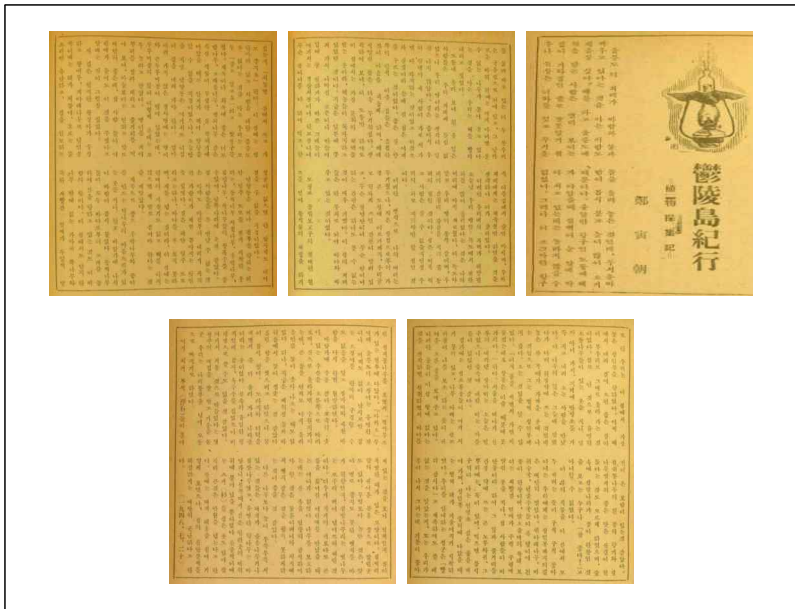
20) 岡本金藏는 다음의 서효원의 글[서효원의 시시콜콜 과학사] 울릉도 식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조선일보, 2016.10.1.)(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30/2016093085012.html) [검색일:2020.8.1]을 참고하면, 조선총독부 산하 ‘朝鮮産業技師’(임업시험장 근무) 자격[‘조선총독부관보’ 국사편찬위원회DB 참조]으로 1912년 울릉도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7년 어느 날 강원도 죽변항(현재는 경북 울진군으로 편입)에서 출발한 한척의 배를 타고 조선총독부 촉탁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박사, 임업시험장 기수 정태현, 미국 식물학자 윌슨(E.H.Wilson) 박사 등 다국적 식물 조사단이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한다. 나카이는 5년전 이 섬에 다녀온 임업시험장의 오카모토 긴조(岡本金藏)와 1년전 다녀온 이시도야 스토무(石戶谷勤)가 채집해 온 식물표본 중에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들이 있음을 알아채고 울릉도행을 결심했던 것 같다. 하버드대 아놀드수목원에서 아시아식물을 담당했던 윌슨 박사를 대동한 것은 새로운 종을 발견했을 때 서구 학계에 신종보고를 위한 검토와 조언을 듣기에 최적의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밑줄은 인용자)

3. 鄭寅朝의 「鬱陵島紀行-植物採集記-」의 내용 검토

3.1. 내용 검토

[그림 1] 鄭寅朝의 「鬱陵島紀行-植物採集記-」(1948.9.)



위의 내용을 나누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구분을 위해 원문에 ㉠~㉨로 표기/인용자)

㉠울릉도의 겨레가 바람과 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적을 상 싶다. 배를 타고 울릉도에 처음 닿는 사람은 멀리 보이는 집이 기와집인 줄로 잘못 알기 쉬우다. 실상은 너와를 잇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인데, 무서운 바람이 몹시 불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이다. 유일한 항구인 도동에 배가 다왔을 때 절벽이 눈앞에 막아서고 있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항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 봉우리는 국유림으로 되어 있고, 그 날카로운 바위 위에는 여기 아니면 볼 수 없는 나무가 붙어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배를 빨리 내리고 싶었다.

① 도동항에 다가서면서 울릉도의 집 풍경, 절벽, 국유림, 바위, 나무에 대한 이야기이다. 1947년의 『鬱陵島·獨島 照査報文』에 따르면, “경상북도 포항과 울릉도-도동 간에는 월 3회의 정기선(200톤 정도)이 있으나 풍랑관계로 결항이 많다.”²¹⁾고 한다.

㉞ 도동에 올라 보니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우리 겨레에 틀림없었으나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 얼핏 나지 않았다. 길은 좁아서 우리 일행의 세 사람이 가로서 가면 다 차지하는 것이었고 이것조차 산길이라 등에 진 짐은 어깨를 누르는 것이었다. 좁은 길 양쪽의 함석 이층집들은 음침한 것이 마음을 괴롭게 하여, 배에 시달린 몸은 더욱 무거워졌다. 생각하여 보니, 이 도동만 하여도 이 섬에서는 가장 문화의 혜택을 받는 곳이라, 왜놈들이 독차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일본에 쫓겨 가서 나막신 코끈이나 만들어 입에 풀칠하기가 바쁜 그네들이 여기서는 경찰서장이니 학교장이니 무슨 장이니를 다 하여 먹고, 함석 이층집에서 술만 마시며, 우리 겨레에게는 채죽질만 하였을 것을 생각하니 이가 갈리었다.

② 도동항에 내려서 현지인들의 ‘흰 옷 입은’ 겨레의 모습, 잃어버린 땅을 찾은 어색한 느낌, 좁은 산길, (일본인들이 살았던) 함석 이층집들, 일제강점기에 문화의 혜택이 있었던 도동, 해방 후 일본인들에 붙어살던 사람들이 지배 권력으로 등극하는 것에 대한 분노 담긴 논평으로 되어있다.

㉟ 이러한 우리네의 겨레가 해방된 오늘날 우리 땅인 독도에서 귀한 피를 많이 흘리었다는 것은 나의 머리에 아직 새로웠다. 이 독도야 말로 우리 땅의 동쪽 끝이며, 우리의 삼천리 강산을 지켜 줄 동해의 섬인 것이다. 섬은, 비록 작고 사람은 살 수 없을지언정 우리의 피로 지켜야만 할 섬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나의 머리는 무거웠으나, 작은 상점으로부터 가장 큰 도청에 이르기까지, 우리글로 힘차게 쓰인 간판이 달려 있고, 무슨 청년단이니 무슨 당이니 하는 간판은 하나도 볼 수 없는 것이 매우 기뻐다. 이 섬의 겨레들은 한 뭉치로 되어 바다와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③ ‘우리네 겨레’, ‘우리 땅 독도’, ‘우리 땅의 동쪽 끝’, ‘우리의 삼천리 강산을 지켜줄 동해의 섬’, ‘우리의 피로 지켜야할 섬’이라는 해방 후 지식인들의

21) 최재복·이태우 외 2인(2017) 「울릉도독도조사보문」, 『해방 이후 울릉도·독도 조사 및 사건 관련 자료 해제·1』, 영남대독도연구소, p.23. 같은 내용이 『鬱陵島地質照査概要』, 같은 책, p.43에도 있다.

국토, 국민에 대한 의식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작은 상점부터 도청에 이르기까지 ‘우리 글’의 간판이 달려 있고, 당시 울릉도에는 내륙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구호나 ‘당의 간판’을 볼 수 없어 ‘기뻐다’고 한다.

㉑ 도청과 삼림보호구의 절대한 원조를 얻어 동식물의 채집을 하기로 한 우리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성인봉을 향하였다. 어제 배에서 내려 걸어오던 좁은 길이 이 봉우리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절로 난 것으로 유명한 오동나무들이 있는 곳을 지나 얼마 아니 가서, 지계에 만병초를 가득 지고 내려오는 사람을 만났다. 이 나무의 잎은 그늘에 말렸다가 다려 위장약에 쓰는 것인데 높은 산 꼭대기 가까운 곳에 나는 것이므로 그는 벌써 성인봉까지 갔다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지 풀을 캐면서 가면 저물겠는데요 상봉은 이슬 때문에 못가리다.」 한다. 서울을 떠나기 전부터 내리던 장마비는 오늘은 멈추었으나 숲속에 내린 비는 마를 틈이 없었던 것 같다.(강조는 인용자. 이하 같음)

④ 관청의 허가를 얻어 동식물 채집을 하러 성인봉으로 향하면서 주변 풍경과 만난 현지인의 성인봉 상황을 언급한다. 이어서 오동나무가 눈에 띈 것을 말하고 지계에 ‘만병초’를 가득 채취하여 지계로 지고 오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길가에는 섬초롱꽃들이 여기 저기 뭉쳐 있고, 나무 아래는 섬꼬리풀이 나를 보소 하는 듯이 귀여운 푸른 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풀들이 이 섬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선취하면서 바다를 건너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았다. 섬쥐똥나무의 흰 꽃의 향기와 섬나무딸기의 좋은 맛은 산길이 힘들다는 것도 모르게 하였으며, 숲속에 섬말나리가 꽃이 한창인 것을 보고는 누구나 「참 좋다!」고 아니 할 수 없었다.

⑤ 장마비가 그친 울릉도에서, 성인봉에 오르는 길가에 ‘섬초롱꽃’, 나무 아래의 ‘섬꼬리풀’, 그리고 ‘섬쥐똥나무’, ‘섬나무딸기’, ‘섬말나리’의 꽃과 향기에 감동하여 ‘참 좋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이어서

㉒ 이 섬의 식물을 이 산에서 모두 캐려는 듯이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우리에게 성인봉까지의 길은 대단히 멀었다. 쥐다래나무, 바위수국, 년출수국들이 폭 덮이어 흰꽃이 한창이며, 말오줌대의 독해 보달린 곳을 지나, 섬사람들이 비단 풀이라 하여 그 잎과 줄거리를 간장약에 쓰는 큰 노루와귀, 그 뿌리에는 독이 있어, 먹으면 몹시 구역이 나는 인영초 같은 풀을 캐어 가며, 성인봉 중턱에 다

았을 때는 벌써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를 안내하는 정군은 「빨리 갑시다」고 재촉하여도 쓸데없는 것을 알았는지. 또는 우리가 흥이 나서 그러는데 기분이 좋아 졌는지 「저물면 산에서 자고 가도 좋지요」한다. 이 섬에는 뱀도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모두 「좋다 말고요」라고 맛장구를 쳤다. 재목이나 화목에 좋은 너도밤나무, 고래솔나무, 섬피나무 같은 특산 식물이 무성한 산 꼭대기에 다았을 때는 안개가 끼어 방향을 알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오늘밤을 지낼 남양동은 여기서도 이십리 길을 내려 가야 한다. 얼마 내려가지 않은 경사면에는 맹이와 큰 두루미꽃이 덮여 있었는데, 두루미꽃의 잎이 이렇게 큰 데는 모두 놀라고 말았다. 맹이를 캐어 뿌리를 찐라 버리고 줄거리를 먹어 보니, 마늘보다는 연하고 맛도 대단히 좋은데, 섬사람 들이 어린애가 울어도 이것을 주겠다고 달래는 것이 그럴 상 싶었다. 세 길은 뫼직한 왕싱아가 무성하고 왕머루, 개다래나무로 덮인 골짜기에는 해가 저물어, 흐르는 물소리만 유난하고, 길을 인도하는 정군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내어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⑥ 이어서 성인봉 가는 길, 내려오는 길에서 만난 풀들, ‘쥐다래나무’, ‘바위수국’, ‘넉출수국’, ‘말오줌대’, ‘비단풀=노루와귀’, ‘인영초’, ‘너도밤나무’, ‘고래솔나무’, ‘섬피나무’, ‘맹이’(산마늘), ‘두루미꽃’, ‘왕싱아’, ‘왕머루’, ‘개다래나무’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섬에는 뱀도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처럼, 당시에 도 울릉도를 三無五多島 즉 ‘도둑, 공해, 뱀’이 없다는 ‘3無’, 水(물), 美(미인), 石(돌), 風(바람), 香(향나무)이 많다는 5多의 섬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⑦ 남양동을 떠나 천부를 향하는 해안 일주 도로를 걷기 시작한 우리는, 동백나무, 사철나무, 후박나무, 감랑나무, 식나무들의 상록수를 볼 수 있어, 남쪽나라에 온 것 같았다. 섬사람들은 통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랑비가 제법 쏟아지는 탓인 듯 싶었다. 길은 해안 일주 도로라고는 하나, 바다를 통 보지 못하며, 재를 넘는 길이라, 이 섬에는 한 대의 자전거도 없고 배를 타지 않으면 제 발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⑦ 남양동에서 면사무소가 있는 천부로 가는 해안 일주 도로에서 ‘동백나무, 사철나무, 후박나무, 감랑나무, 식나무’ 같은 상록수를 만난다. 섬을 탐사하는 동안 해안 길을 줄곧 걸어 다녔음을 알 수 있다.

⑧ 재목으로 좋은 후박나무와 종이를 만드는 닥나무의 아름다리가 있는 곳을 지나, 현포 바닷가에 나서니 바람이 몹시 불었다. 동백나무들이 모두 바다로부

터 고개를 돌리어 산을 향하고 있는 것도 이 바람의 탓이다. 이 섬에서도 단정한 나무 밖에 없는 가마귀쪽나무와 독한 새빨간 열매가 두알씩 달린 섬괴불나무를 보면서 면사무소가 있는 천부에 다았다, 「마카오」무역에 울릉도의 오징어는 유명한 것이나 미끼도 없이 낚시로만 잡는 오징어를 한 마리 구경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장마비와 세찬 바람을 다시 한 번 원망하였다.

⑧ 남양동에서 현포리를 지나 천부리에 닿는 동안 ‘후박나무, 닥나무, 동백나무, 가마귀쪽나무, 섬괴불나무’를 만난다. 마카오와 무역 하는데 유명했던 ‘울릉도 오징어’를 맛보고 싶어 했으나 비바람으로 여의치 못했음을 알 수 있다.

㉑ 바닷가에 송곳 같이 뾰족히 솟아 있는 추산을 오른쪽으로 바라보며, 산으로 올라가면 수원지가 되는데, 큰 돌을 던져도 다시 올라 올만큼 물이 솟아 나오는 때도 있었다 하나, 지금은 메워진 돌과 바위틈에서 물이 샘솟는 것 같았다. 흘린 땀을 씻으려고 하였으나 물이 몹시 차다. 도라지와 더덕을 캐면서 좀 더 올라가니 나리골이라는 곳이였다 산속의 유일한 평지인데 감자, 옥수수를 심었으나 비행장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여기서 거둔 것으로 만들었다는 엿청주의 대접을 잘 받고 기운을 돌군 우리는 나리동봉을 넘어 도동으로 빠지기로 하였다. 여기저기 浮石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니 언제인지 산이 폭발한 때가 있는 모양이다. 섬백리향의 귀여운 분홍 꽃으로 깔린 곳도 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맛이 별로 좋지도 못한 뺨지를 따기 위험인지, 섬뿔나무라는 뿔나무는 모조리 베어 넘어뜨려 버린 것이다. 더욱이 자기의 키보다도 큰 톱을 짊어진 어린애를 만났을 때는 어이가 없었다. 나무를 보호하는 데는 산 속을 엄중히 감시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여니와 저자에서 뺨지 같은 것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다른 나무보다 높이 우뚝우뚝 서있는 것들은 대개가 솔송나무거나 섬잣나무였고, 유명한 향나무는 바닷가나 산꼭대기 같은 험한 곳의 바위 위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산골짜기에는 스기(杉)를 심은 곳도 있어 잘 자라 큰 것은 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산에는 대개 해송을 심어 거뭇게 보였으나, 섬의 신탄 문제를 해결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한다. 1948.7.20.

⑨ 산속의 유일한 평지인 나리골에 감자, 옥수수를 심었으나 이곳에 비행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 여기서 만든 엿청주 대접을 받고 기운을 차려서, 나리동봉을 넘어 도동으로 빠지는 동안 섬백리향, 섬뿔나무, 솔송나무, 섬잣나무, 향나무, 일본인들이 심은 것으로 보이는 스기(杉, 삼나무), 해송 등을 만난다. 당시 필자는, 뿔나무를 다 베어버린 것, 그리고 ‘자기의 키보다도 큰 톱을 짊어진 어린애’를 만났을 때는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잘 자란 큰

삼나무는 ‘만원이 넘는’ 고가였다고 하니 벌목이 성행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필자는 나무를 보호하는 데는 ‘산 속을 엄중히 감시’하여야 함은 물론 뾰족한 것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보탠다. 산에는 해송을 심기는 했지만 薪炭(신탄) 즉 ‘떨나무와 숯’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식물 상황만이 아니고 지형에 대한 것, 벌목이나 떨감의 문제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3.2. 식물 및 풍경의 특징

우선, 위에 나온 식물들을, 정태현 외 공편인 『朝鮮植物鄉名集』²²⁾ 및 김태원의 『울릉도자생식물도감』²³⁾ 등을 근거로 기행문에서 언급된 당시의 식물 30여종이 현재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鄭寅朝의 기행문 속 등장 식물 30종 목록

번호	명칭	식물존재 여부
1	만병초 (<i>Rhododendron brachycarpum</i>)	有
2	참오동나무 (<i>Paulownia tomentosa</i> (Thunb.) Steud)	有
3	섬초롱이꽃 (<i>Campanula takesimana</i> Nakai)	有
4	섬취통나무 (<i>Ligustrum foliosum</i> Nakai)	有
5	섬나무딸기 (<i>Rubus takesimensis</i> Nakai)	有
6	섬말나리 (<i>Lilium hansonii</i> Leichtlin)	有
7	취다래 (<i>Actinidia kolomikta</i> Maxim)	有
8	바위수국 (<i>Schizophragma hydrangeoides</i> Siebold & Zucc.)	有
9	등수국(넉출수국) (<i>Hydrangea petiolaris</i> Siebold & Zucc)	有
10	큰노루귀 (<i>Hepatica maxima</i> (Nakai) Nakai)	有
11	닥나무 (<i>Broussonetia kazinoki</i> Siebold)	有

22) 鄭台鉉·都逢涉·李德鳳·李徽載 共編(1937) 『朝鮮植物鄉名集』, 朝鮮博物研究會, pp.1-3.

23) 김태원(2018) 『울릉도 독도 식물도감』, 자연과생태.

번호	명칭	식물존재 여부
12	가마귀쪽나무 (<i>Litsea japonica</i> (Thunb.) Juss)	有
13	너도밤나무 <i>Fagus japonica</i> var. <i>multinervis</i> (Nakai)	有
14	섬피나무 (<i>Tilia insularis</i> Nakai)	有
15	섬괴불나무 (<i>Lonicera morrowii</i> A.Gray)	有
16	맹이(산마늘) (<i>Allium victorialis</i> var. <i>platyphyllum</i>)	有
17	큰두루미꽃 (<i>Maianthemum dilatatum</i> (Wood) A. Nelson & J. F. Macbr.)	有
18	왕싱아(왕호장) (<i>Reynoutria sachalinensis</i> (F.Schmidt) Nakai)	有
19	개다래나무 (<i>Actinidia polygama</i> Maxim.)	有
20	솔송나무 (<i>Tsuga sieboldii</i> Carriere)	有
21	동백나무 (<i>Camellia japonica</i> L)	有
22	사철나무 (<i>Euonymus japonicus</i> Thunb)	有
23	후박나무 (<i>Machilus thunbergii</i> Siebold & Zucc)	有
24	식나무 (<i>Aucuba japonica</i> Thunb.)	有
25	더덕 (<i>Codonopsis lanceolata</i> (Siebold & Zucc.) Trautv)	有
26	섬жат나무 (<i>Pinus parviflora</i> Siebold & Zucc.)	有
27	섬백리향 (<i>Thymus quinquecostatus</i> var. <i>japonica</i>)	有
28	섬벚나무 (<i>Prunus takesimensis</i> Nakai)	有
29	향나무 (<i>Juniperus chinensis</i> L.)	有
30	섬꼬리풀 (<i>Veronica insularis</i> Nakai)	有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도동의 흰 옷 입은 사람들’, (성인봉까지 갔다 내려오는) ‘만병초를 지고 오는 사람’, ‘자기의 키보다도 큰 톱을 짊어진 어린 애’이다. 울릉도 주민으로서 약초를 캐거나 나무를 베러 다니는 어린아이이다.

마지막으로 음식과 경관에 대해서이다. 우선 ‘좁은 길’, ‘뽕죽한 산봉우리’,

무서운 바람이 몹시 불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너와를 잇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집’, ‘날카로운 바위’, 도동의 좁은 길 양쪽의 음침한 ‘합석 이층집들’, ‘우리 글’의 간판이 달려 있는 ‘작은 상점과 도청’, 나리골에서 나온 곡물로 만든 ‘엿청주’ 등이다. 당시 장마 시기라서 사람들이 적었으며, 오징어도 맛볼 수 없었다고 한다.

4. 나오는 말

이 논문은 종래 소개된 바 없는, 1948년 7월에 발표된 鄭寅朝의 「鬱陵島紀行: 植物採集記」을 통해서, 1947년의 울릉도 식물 및 현지 상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鄭寅朝는 이미 울릉도의 식물에 대한 많은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기행문이 1947년 8월 ‘남조선 과도정부’와 ‘조선산악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울릉도학술조사대’의 식물전문조사팀에 소속되어 울릉도 현지답사를 수행한 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행문에서 언급된 당시의 식물 30여종은 현재 생육 식물들과 대조해본 결과 모두 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행문에서는 조국, 국토라는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었고, 해방 직후 멀리 떨어진 국토를 밟는 기쁨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넷째, 해방 직후의 울릉도 풍경은 정치적으로는 고요했으나, 약초 및 채소 채취는 물론 벌목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행위는 당시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그 이전 일본인들의 잠입에 의해, 또는 조선의 內地 및 섬(거문도 등) 사람들에 의해 지속되어왔던 일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일제강점기가 일본인들이 남긴 현지 풍경으로서 도동항의 ‘합석 이층집들’, 산에 식재된 ‘스기’(杉, 삼나무)를 살필 수 있다. 그 외의 것은 기록되지 않아 파악할 수가 없었다.

덧붙이자면, <부록>에 보듯이 1947년 현지 조사 때 참가한 洪九杓가 쓴 「無人 獨島 踏査를 마치고(紀行)」²⁴⁾ 등 여러 자료가 있다. 이들을 총괄 검토하면 해방 직후의 울릉도·독도 상황과 풍경을 기록자료 내에서 재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다음 기회로 돌린다.

24) 洪九杓, 「無人 獨島 踏査를 마치고(紀行)」(1947) 『建國公論』 11월호(제3권 제5호), 건국공보사.

<부록> 1947 울릉도 학술조사대 관련 ‘기사·답사보고서·기행문·사진 목록

「울릉도답사기(1)」, 『민주일보』(1946.6.16.)
「울릉도답사기(2)」, 『민주일보』(1946.6.17.)
「울릉도답사대, 조선산악회서 파견」, 『한성일보』(1947.8.3.)
「독도조사단 16일 발정」, 『대구시보』(1947.8.17.)
「울릉도학술조사대, 현지착 활동에 착수(울릉도 21일발 조선) 『서울신문』(1947.8.22.)
「독도는 이런 곶」, 『남선경제신문』(1947.8.27.)
「독도는 이런 곶」, 『남선경제신문』(1947.8.28.)
권상규, 「동해의 孤島 울릉도기행(1)」, 『대구시보』(1947.8.27.)
권상규, 「울릉도기행(2) 『대구시보』(1947.8.29.)
<독도사진공개, 본사 최측탁 촬영> 『대구시보』(1947.8.30.)
「독도사진」, 『대구시보』(1947.8.31.)
석주명, 「울릉도의 연혁」, 『서울신문』(1947.9.2.)
석주명, 「울릉도의 자연: 石宙明」, 『서울신문』(1947.9.9.)
석주명, 「鬱陵島の 人文」, 『신천지』 1948년 2월호(제3권 제2호).
석주명, 「特別附錄·德積群島 學術調査報告」, 『신천지』 1950년 6월(통권 47호).
<울릉도사진> 《大邱時報》 1947.9.3.
<울릉도사진> 《大邱時報》 1947.9.4.
<울릉도사진> 《大邱時報》 1947.9.5.
「울릉도조사대의 귀환보고강연회」, 『서울신문』(1947.9.9.)
「울릉도보고, 10일에 강연회」, 『工業新聞』(1947.9.9.)
구동련, 「鬱陵島紀行(1) 浦項支局 具東鍊」, 『수산경제신문』(1947.9.20.)
구동련, 「鬱陵島紀行(2) 浦項支局 具東鍊」, 『수산경제신문』(1947.9.21.)
구동련, 「鬱陵島紀行(3) 浦項支局 具東鍊」, 『수산경제신문』(1947.9.23.)
구동련, 「鬱陵島紀行(4) 浦項支局 具東鍊」, 『수산경제신문』(1947.9.24.)
「鬱陵島 學術調査隊 報告記(1) 洪鍾仁」, 『한성일보』(1947.9.21.)
「鬱陵島 學術調査隊 報告記(2) 洪鍾仁」, 『한성일보』(1947.9.24.)
「鬱陵島 學術調査隊 報告記(3) 洪鍾仁」, 『한성일보』(1947.9.25.)
「鬱陵島 學術調査隊 報告記(4) 洪鍾仁」, 『한성일보』(1947.9.26.)
「가제(於獨島): 尹炳益」, 『서울신문』(1947.11.15.)
「가제(獨島産): 尹炳益」, 『서울신문』(1947.11.15, 11.18.)
도봉섭 1937, 「鬱陵島植物相; 孤島植物踏査記 特別 天然記念物을 찾아서(제-6회)」, 『동아일보』(1937.9.3.-9.11.)
「독도를 탐사」, 『대구시보』(1947.8.22.)
「鬱陵島學術踏査隊, 獨島踏査, 意外의 海菊發見」, 『조선일보』(1947.8.23.)
「東海 神秘境인 獨島의 生態에 恍惚, 山岳會調査隊」, 『자유신문』(1947.8.24.)
「聖人峰을 踏破? 科學하는 朝鮮」, 『工業新聞』(1947.8.28.)
「독도 가제에 대하여」, 『자유신문』(1947.9.1.)
특파원, 「질해의 울릉도: 학술조사대 답사①」, 『조선일보』(1947.9.4.)
김원용, 「울릉도의 여인」, 『서울신문』(1947.9.6.)
方鍾鉉, 1947, 「獨島의 하루」, 『경성대학 예과신문』 13호(정해년 추석전야 1947.9.28.)
「독도의 국적은 조선, 입증할 엄청난 증거자료 보관」 『工業新聞』(1947.10.15.)
洪九杓, 「無人獨島 踏査를 마치고(紀行)」, 『建國公論』 11월호(제3권 제5호), (건국공보사, 1947)
「울릉도 보고전」, 『독립신보』/『서울신문』(1947.11.5.)
「울릉도전시회에 도민대표가 상경」, 『大邱時報』(1947.11.8.)
「鬱陵島報告展을 열면서: 洪鍾仁」, 『서울신문』(1947.11.15.)
鬱陵島學術調査隊長 宋錫夏, 「古色蒼然한 歷史의 遺跡 鬱陵島를 찾아서!」(1947.12.1.)
「東海의 내 國土, 슬프다 流血의 記錄: 踏査回顧, 洪鍾仁記」, 『조선일보』(1948.6.17.)
鄭寅朝, 「鬱陵島紀行: 植物採集記」, 『學風』, (乙酉文化社, 1948.9.)[영인본 『韓國現代文學資料叢書』·14, (景仁文化社, 1989) 수록]
申奭鎬「獨島所屬에 대해서」, 『史海』, 1948년12月号(第1卷第1號)
한국산악회50년사편찬위원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대」, 『한국산악회50년사』(한국산악회, 1996)
「鬱陵島及獨島地質調査概報(地質鑛物班 玉昇植), 독도박물관 소장[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자료총서』 4권에 번역 재수록]
韓國山岳會, 「(檀紀四二八五年七月) 鬱陵島獨島學術調査團派遣計劃書」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편(2008) 『鬱陵島』, 국립중앙박물관, p.19.
 權炳奎(1977.12) 「鬱陵島 및 獨島의 生物相 概觀」, 『鬱陵島·獨島踏査紀要』,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종합학술조사단, p.94.
 마거릿 버트하임(1999) 『공간의 역사』, 박인찬 옮김, 생각의 나무, p.424. p.428.
 유미림(2014.2)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독도’ 호칭」, 『영토해양연구』 Vol.5, 동북아역사재단, pp. 207-208.
 정병준(2010) 『독도 1947』, 돌베개, pp.110-141.
 鄭寅朝(1948.9.) 「鬱陵島紀行 : 植物採集記」, 『學風』, 乙酉文化社, pp.87-91.
 鄭台鉉·都逢涉·李德鳳·李徽載 共編(1937) 『朝鮮植物郷名集』, 朝鮮博物研究會, pp.1-3.
 최재목·이태우 외 2인(2017) 『해방 이후 울릉도·독도 조사 및 사건 관련 자료 해제·1』, 영남대독도연구소, p.21, p.23, p.43.

<참고자료>

김태원(2018) 『울릉도 독도 식물도감』, 자연과생태.
 송호열(2015.9) 「1947년 독도 학술조사에 대한 지리적 고찰」,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권3호, 한국사진지리학회.
 오수영(1978) 「울릉도 관속식물상에 관한 연구」, 『경북대논문집』 25호, 경북대학교.
 유미림·조은희(2008) 『개화기 울릉도·독도 관련 사료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진선·장계선(2010.6) 「외국인의 한반도 식물 채집행적과 지명재고(IV) Tsutomu Ishidoya(石戶谷勉)」, 『식물분류학회지』 40권2호, 한국식물분류학회.
 주강현(2009) 『울릉도 개척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洪九杓(1947) 「無人 獨島 踏査를 마치고(紀行)」, 『建國公論』 11월호(제3권 제5호), 현암사.
 中井猛之進(1919) 『鬱陵島植物調査書』, 조선총독부.

논문투고일 : 2020.08.18

논문심사일 : 2020.09.02

심사확정일 : 2020.09.09

필자 인적사항

성명 : (한글) 최재목, (한자) 崔在穆, (영어) Choi, Jae-Mok

소속 : 영남대 독도연구소 / 영남대 철학과

논문영문제목 : Ulleungdo Island of 1947 Seen Through Jeong In-jo's Travel Writing

Ulleungdo: Plant Collection Records

E-mail : choijm@ynu.ac.kr

<국문요지>

이 논문은 종래 소개된 바 없는, 1948년 7월에 발표된 鄭寅朝의 「鬱陵島紀行 : 植物採集記」을 통해서, 1947년의 울릉도 식물 및 현지 상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鄭寅朝는 이미 울릉도의 식물에 대한 많은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기행문이 1947년 8월 ‘남조선 과도정부’와 ‘조선산악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울릉도학술조사대’의 식물전문조사팀에 소속되어 울릉도 현지답사를 수행했던 필자(정인조)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행문에서 언급된 당시의 식물 30여종은 현재 생육 식물들과 대조해본 결과 모두 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행문에서는 조국, 국토라는 확고한 의식이 잘 드러나 있고, 해방 직후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국토 울릉도의 땅을 밟는 기쁨을 잘 드러나 있다.

넷째, 해방 직후의 울릉도는 정치적으로는 고요했으나, 약초 및 채소 채취는 물론 벌목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행위는 당시뿐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그 이전에도 일본인들의 잠입에 의해, 그리고 조선의 內地 및 섬(거문도 등) 사람들에게 의해 지속되어왔던 일이었다.

다섯째, 일제강점기가 일본인들이 남긴 현지 풍경으로서 도동항의 ‘함석 이층집들’, 산에 식재된 ‘스기’(杉. 삼나무)를 살필 수 있다. 그 외의 것은 기록되지 않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주제어 : 정인조, 울릉도 기행문, 울릉도학술조사대, 식물채집, 1947년